

SK네트웍스, CEO 연봉 20% 반납

사외이사·임원은 10% 내놓기로 ... 경영진 솔선수범 비용절감 나서

SK네트웍스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CEO는 물론 사외이사과 임원들이 연봉의 일부를 자진 반납기로 했다고 1월23일 발표했다.

사외이사과 임원들은 동결된 연봉의 10%를 CEO와 사내의 CIC(회사 내 회사) 사장들은 연봉의 20%를 자진 해서 내놓기로 했다.

SK네트웍스 관계자는 “경영진이 솔선수범해서 비용절감에 나서 내실경영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SK네트웍스는 세계 경제침체에 대응해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서바이벌 계획을 수립해 위기극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SK와 SK에너지 사외이사들도 연봉의 10%를 자진 반납기로 했으며, SK텔레콤도 경기불황에 따른 경영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임원 연봉을 10%를 감축하는 등 임금 감축바람이 거세지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1/23>